

그냥 무조건 믿고 닥치는 대로 그냥 거기 놓으세요!

25면에서 계속

며) 탁 믿어 버리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움직여야 하는 것이 그놈이 아니겠나 이거야. 사실이지,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없다면 지금 모두 송장들일 거예요. 허허허... 그러니 송장을 움직여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거니까 뭐, 잘돼라 못돼라 할 것도 없고, 잘돼야 한다 못돼야 한다 이럴 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믿는다, 믿어라 이렇게 할 것도 없는 데 그런 거죠.

질문자2(남)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증득을 해서 아주 탁 쉬어질 정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큰스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급하시면 그냥 무조건 믿고 닥치는 대로 그냥 거기 놓으세요. 감사하게 놓고, 되게 하는 것보다 더더 하고 놓고, 모든 걸 그렇게 놓고 가세요. 마음이 급하고 급하지 않고 이걸 떠나서 그냥 닥치는 대로요. 거기에 진짜 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질문자2(남) 그럼 한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겠습니까.

질문자3(남) 청주지원에서 왔습니다. 큰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한 게 한, 4년여 되는 거 같습니다. 큰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너무나 닿아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또 '그래서 너는 죽은 거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가 극락의 문턱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스님 허허하... 네.

질문자3(남) 그런데 도반들과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깐요, 이 공부들 그냥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서로 대두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법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큰스님이 그전에 공부하실 때 얘기를 한번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부산에 계시면서 거기서 식당 같은 것도 하시다가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나도 모르죠, 그것은. (대중 웃음) 나 아닌 나가 아마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켜 가지고 끌고 돌아다녔는지 그거는 모르죠. 부처님께서는 그 과정을 나시기 이전에 이미 다 하시고도 나서서, 부처님이 되어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건 왜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의 나를 위해서요.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바로 나의 입장이니까 그냥 모두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고행을 이차적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중 웃음) 예를 들어서 아수라장이라서 듣기 싫고 고달프고 그래서 산으로 떠난다 한다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허허하... 또듯하게 볼도 때지

도 말고 사셔야죠. 모든 게 더불어 같이 사는 건데, 더불어 같이 사는 도리를 알아야 할 텐데 더불어 사는 도리를 다 내버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면 그럼, 아예 다 그냥 벗고 먹지 말고 살 테면 사세요. 허허하...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그게 항상 의문이 가서요, 그래서 도반들과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걸 인산인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산에서 산의 가시는 피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의 가시를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주인공이 그 의식을 다스리고 내 몸뚱이를 다스리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다가 다 믿어 던져야죠. 거기다 입입하고 '내가 안에서 그러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다 놓으면 그대로 정신분열증도 그냥 낫는데 그거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를 알아야!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꼭 귀신이 나한테 들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가 그게 유전이 되죠.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각을 잘못된 연관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거니까 무슨 유전성으로 이렇게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죠. 아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다고요.

그리고는 또 이러거든요. 부모가 암으로 죽으면 '아이구, 간장이 나쁘네. 아이구, 또 유전인가 보다.' 아니 '유전인가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러거든요. 허허하... (대중 웃음) 그러나 이 생각이 얼마나 우물쭈물하냐, 응? 그리고 생각이 우물쭈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왜가 없고 그렇게 뚜렷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하게 생각을 하니가 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약하게 생각을 하면 이 속의 의식들이 다 약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대로 따르요. '오늘 저녁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면 그대로 여기 의식들이 따라 주고요. '오늘은 좋은 일 하러 간다' 그러면 좋은 일로 또 따라 주고요. 그냥 마음이 하지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여긴,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을 튼튼히 할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죽는 날까지는 살 거 아닙니까? 허허하...

질문자3(남) 분명히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서도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큰스님 할 수 있죠, 예. **질문자3(남)** 고맙습니다. **큰스님** 허허하... (대중 박수)

사회자 질문이 없습니다. **큰스님** 모두 도인들이신가 봅니다. (대중 웃음) 허허하... 따지고 보면 걱정이 없으니까 말수도 없어요. 마음이 뛰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이 정신분열이라는 것도요, 내가 항상 말하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되거든요. 인연이 돼서 이 몸뚱이 속에 주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익하게 작용을 해 주기도 하고, 전자에 배신을 당하고 그랬던 인과와 인연은 그냥 나쁘게 작용을 해서 몸을 외려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신분열이라도 타의에서 귀신이 들어온 거는 아니라고요. 자의에서 일어난 건데 자의에서 일어나는 거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자기의 불성 주인공 밖에 없거든요.

주인공이 그 의식을 다스리고 내 몸뚱이를 다스리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다가 다 믿어 던져야죠. 거기다 입입하고 '내가 안에서 그러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다 놓으면 그대로 정신분열증도 그냥 낫는데 그거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를 알아야!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꼭 귀신이 나한테 들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가 그게 유전이 되죠.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각을 잘못된 연관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거니까 무슨 유전성으로 이렇게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죠. 아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다고요.

그리고는 또 이러거든요. 부모가 암으로 죽으면 '아이구, 간장이 나쁘네. 아이구, 또 유전인가 보다.' 아니 '유전인가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러거든요. 허허하... (대중 웃음) 그러나 이 생각이 얼마나 우물쭈물하냐, 응? 그리고 생각이 우물쭈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왜가 없고 그렇게 뚜렷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하게 생각을 하니가 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약하게 생각을 하면 이 속의 의식들이 다 약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대로 따르요. '오늘 저녁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면 그대로 여기 의식들이 따라 주고요. '오늘은 좋은 일 하러 간다' 그러면 좋은 일로 또 따라 주고요. 그냥 마음이 하지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여긴,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을 튼튼히 할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죽는 날까지는 살 거 아닙니까? 허허하...

질문자3(남) 분명히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서도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큰스님 할 수 있죠, 예. **질문자3(남)** 고맙습니다. **큰스님** 허허하... (대중 박수)

사회자 질문이 없습니다. **큰스님** 모두 도인들이신가 봅니다. (대중 웃음) 허허하... 따지고 보면 걱정이 없으니까 말수도 없어요. 마음이 뛰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이런 거죠. 하여튼 열심히 배워서 바깥에서는 바깥대로 이 마음의 도리를, 관하는 걸 가르쳐서 모두 이익하게 하시고, 안에서 스님네들은 스님네들대로 이익하게 남을 이끌어 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로부터 앞으로는...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집해서 사는 세계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세계가 지금도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하나를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 줘야, 즉 한 나라의 일이 성사돼야 이 나라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병자도 천차만 별이예요. 병자가 하나 들어오면 어떤 병자는 그냥 해도... 어떤 병이나 또, 병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자주 죽고, 그냥 별 붙일 없게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을 때, 그걸 해결을 하려면 저승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뚱이로는 못 가는 데가 저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장으로 화(化)하든지 해야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집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 거와 같이 남의 나라도 잘살아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나가면 잘한다고 하면만 그랬지 그것이 실행이 되질 않고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실명제로 인

해서 아예 망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지 흘러가는 물을 꼭꼭 그냥 막아 놓고는 어떻게 피가 돌고 살이 돌라고 그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몸뚱이를 딱 가둬 놓은 거와 같으니까 스위스나 뭐 이런 데로 다, 허허하... 옮겨지죠. 나라의 돈이 다 그렇게 판 데로 퍼지고 판 나라로 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되는 건 집에다가 그냥 쌓아 놓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많죠. 그렇지 않아도 이나라는 지금 가혹이나 반씩 나누어서 전세 살고 있는 셈인데 그럭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야 찌지 않을 텐데, 이 실명제로 딱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건 하나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데 이 물 들어오는 걸 막고 피장포장하게 내 물만 요렇게 두려고 한다면 그 물은 썩어고, 결국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더불어 같이 사는 세계고, 우리나라도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마음 언짢지 않게 섭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게 윤행이 더 발전도 되고, 의할 되고, 도깨비들도 생기지 않고, 강도들도 생기지 않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에 가깝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하 다못해 빵 장수의 손까지 묶어 놓은 셈이니까요. 허허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혜에 모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할 것은요, 우리가 '불교' 하면 진리가 불교인데 불은 생명이요 교는 바로 생활인데, 내 종교만 제일이고 남의 종교는 다 아니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죠. 그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다 싸안아 줄 수 있고 퍼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그건 대통령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아, 요 주머니 안에서 자기가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도 미안할 텐데, 하하하... 아이, 요 주머니 속의 한 귀퉁이에서, 또 그것도 한 귀퉁이를 막아 가지고, 그것도 반쪽씩 나누어 가지고 들어앉아서 그러는 그게 할 일이에요? 공기주머니 하나를 버스라고 할 때 버스 안에서 걸상 하나씩 틀어 쥐고 앉아서 이거는 내 거라고 하는 격인데 어떻게 그 버스가 목적지까지 가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한 거 같죠? (대중 웃음, 박수) 말 잘못하면 뭐, 붙잡혀 간다는데... 그 뭐 나는 하나도, 붙잡혀 가든지 말든지... 요말했다고 붙잡혀 가지는 않겠지. 날 붙잡아다가 뭐 하겠어요, 또? 날 붙잡아 가도 같이 저쪽에 들어갈 테니까. (대중 웃음, 박수)

말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한 거 같죠? (대중 웃음, 박수) 말 잘못하면 뭐, 붙잡혀 간다는데... 그 뭐 나는 하나도, 붙잡혀 가든지 말든지... 요말했다고 붙잡혀 가지는 않겠지. 날 붙잡아다가 뭐 하겠어요, 또? 날 붙잡아 가도 같이 저쪽에 들어갈 테니까. (대중 웃음, 박수)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나가면 잘한다고 하면만 그랬지 그것이 실행이 되질 않고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실명제로 인

남이 나를 잘해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위 본문은 1997년 12월 7일 범행계 범회에서 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신문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8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초급반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성, 쇠송, 상단예불, 불공식시 등

◆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반(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특 수 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살풀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중과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거에맞는 스님들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전수원원광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속설에 의하면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오대산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시는 스님들은 혈액을 맑게하여 원기와 기력을 돋우고 관절을 보호하며 몸의 냉기를 제거시켜 혈액순환이 잘되어 추위를 이겨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가목 차를 드시며 수행하고 산승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득도하신 고승으로부터 고유전래의 비법을 전수 받아 청정한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시주 불자님께서 요청하시면 보시합니다.

대진 승 두손 모음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출연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031)775-1285

불기 2553년(2009년) 기축년 새해 새날 신년 특집광고 접수 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53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기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하시는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무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범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진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제 목 : 2009년 신년 특집 축하광고

■ 내 용 : 축하말씀, 단체 및 사찰명, 임원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 크 기 : 크기에 따라 선택 가능

■ 마감일 : 2008년 12월 22일(월요일)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및 지사지국

본 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남부	055)746-9778
경남동부	055)353-1196
경남서부	055)355-7472
광주전남	062)384-3009
전 북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립니다.

현 대 불 교 신 문 사